

해·외·정·보

■일본 소림제대산업, 선도유지 관련상품 적극화
장아노바름, 무가교 발포 PE 특성살린 완충재개발

서촌산업, 고지파쇄기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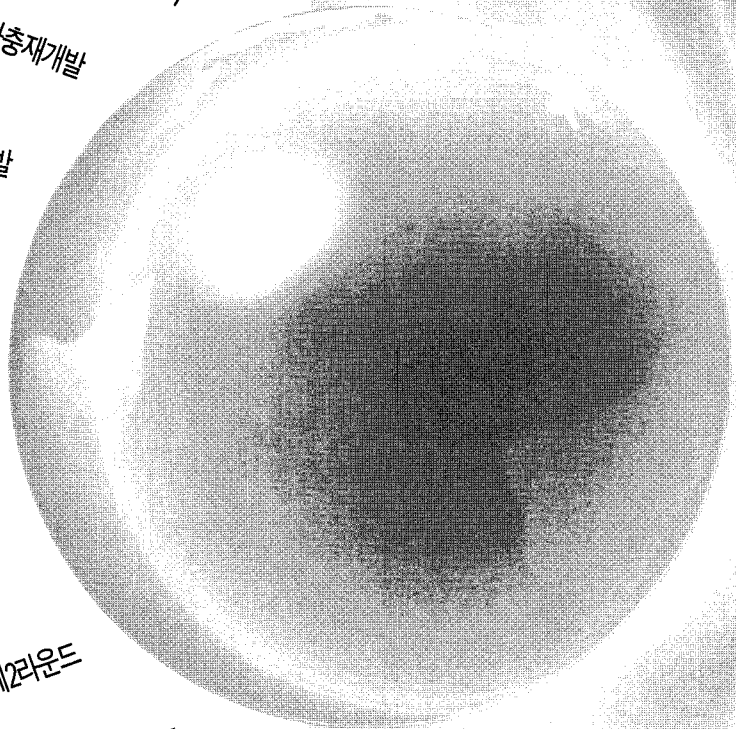
미놀타, PET병 성형검사기 업계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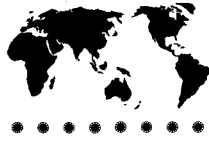
■중국 포장기술협회, 포장기업 경영상황 조사

상해시, 외국 158개 합작 특혜 철폐

선진국 화학업체 제2라운드

■미국 듀폰, 벌금형에 항소계획 등





일, 소림제대산업

선도유지 관련상품 적극화

소림제대산업은 과일포장을 중심으로 과일육성과 관련한 제품, 포장소재, 선도보존기재 등을 폭넓게 제조,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일포장에 관련된 생산자재로써 감의 수확자재, 과일의 수분자재등도 판매하고 있으며, 포장분야에서도 선도유지관련 상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선도유지재는 명주의 보습, 주습기능을 이용한 것. 명주를 건식제법으로 떠서, 통기성이 좋은 부직포와 같은 화선지모양, 시트모양으로 한 것으로, 농산물등의 생산품을 포장해 선도를 보전한다. 이는 우수한 선도유지 효과를 발휘할 뿐 아니라, 명주는 천연소재이기 때문에 식품등에 대한 안전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동사의 선도유지재는 농림수산성과의 협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동사는 송본에서 개최된 '신주팩'에 여러 상품을 선보였고 동사 독자로 출품할 뿐 아니라 JA장야 경제연의 코너와도 협력하고 있다.

때문에 독자 코너에는 식품관계 포장자재나 관련상품을 메인으로 전시하고 있으며, 선도유지 상품이나 전해수 관련상품, 냉온고 등을 출품하고, JA코너에서는 과일포장, 감의 수확자재, 수분자재 등을 전시했다.

일, 장야노바름

무가교 발포 PE특성 실려 역재일용의 완충재 개발

장야노바름은 무가교 발포 폴리에틸렌제의 포장재료로써 주목받고 있는 바라완충제인 '노벌DX', 파킹재 '노벌S'에 연속해, 신제품 '에스보'와 '에스파이프'의 판매를 시작했다.

동사기술의 최대포인트는 종래에 어렵다고 한 무가교 발포PET에 의한 이형물가동·동기술에 의해 여러형상의 성형품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강한 쿠션성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년에 발매된 노벌DX는 완충성능이 높을 뿐 아니라, 재활용해서 쉽게 소각처리해도 안전(흑연이나 악취를 발

생하지 않는)하다는 점에서, 연속으로 발매된 노벌S와 함께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 순조로운 실적을 거두고 있다. 또한 가교 폴리에틸렌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점도 이점의 하나이다.

신제품 '에스보'는, 무가교 발포PET를 자재로 압출 성형한 봉모양의 제품이며 '에스파이프'는 센터가 비어있는 파이프 모양으로, 성능과 특징은 노벌과 같지만, 그 형상에서는 광범위한 용도전개가 가능하다.

포장용도로는 각종 쿠션재, 코리페드, 보온재 등이며 그 외 용도로는 건축재료, 각종 심재등에 사용할 수 있다. 크기는 직경 23~42mm 정도까지 가능하며, 형상도 원주뿐 아니라 삼각, 사각, 육각등도 가능하며, 커트가 공 등을 함으로써 여러 사용법이 가능하다.

동사에서는 이러한 무가교 발포PET 제품을 '신주팩'에 출품 할 것이며 이는 무가교 발포PET 이형가공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기발하고, 그 완충재를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동사의 입장과도 맞아 크게 어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 서촌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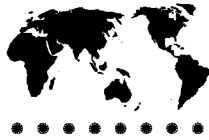
삼양철공소와 고지파쇄기 공동개발, 분쇄기료써의 수요도 기대

폐플라스틱 재생기메이커인 서촌산업은 본기지의 금속가공기업인 삼양철공소와 공동으로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 서류 등에서 재생원료를 제조하는 '고지건조식 마쇄식'을 개발했다.

이 원료에 펄프몰드성형품 등을 생산할 수 있다.

이 장치는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를 본체상부에 투입함으로써 카터기로 절단, 분쇄해 마찰열에 의해 선쓰레기 모양으로 가공한다. 이후 동장치에 추가로 조립기를 장착해 5~10mm의 입자로 재생원료를 연속으로 제조한다. 이 재생원료는 재활용소재로 완충재나 연화자료, 원예용 파종시트, 단열재 등으로 가공할 수 있다. 또한 종이를 재단할 뿐 아니라 마찰열로 면상대로 가공하기 때문에 분쇄기료써의 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

동장치는 처리능력 개시 10kg의 사무실용 소형기에서 1톤까지 가능한 전문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형기까지 시리즈화 되어 있다. 가격은 40kg의 능력에 조립기와 조합된 형태가 약 450만엔.



일, 미놀타

PET병 성형검사기로 라인자동검사분야에 진출

카메라, 복사기 유수메이커인 미놀타는 '오사카팩'에 PET병 성형검사장치 'MBM 710'을 처음으로 출품하고, 라인 자동검사 시스템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지금까지 자사 복사기의 프린트검사에 사용했던 화상처리기술을 병이나 인쇄검사장치로 응용한 것.

이것은 콘베이어라인과 연결해, 24시간 연속 가동할 수 있는 큰 특징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를 기대할 수 있다.

PET병 성형검사기는 고정도 CCD카메라와 컴퓨터를 이용한 고속 화상처리에 의해 성형직후의 형상불량 검사나 성형불량 검사, 나아가서는 내외직경, 높이 등의 치수측정을 고속, 고정밀로 행할 수 있으며, 생산라인과 직접 연결해 콘베이어 라인상에서 24시간 연속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광범위해 다양한 형상, 사이즈, 색의 PET병에 대응한다. 검사 소프트웨어는 이 회사 독자의 것을 채용해 검사결과를 보존할 수 있으며, 일·주·월마다의 집계가 가능하다.

검사수치 정밀도는 0.05밀리 이상이며, 검사결함사이즈는 0.1m³ 이상. 검사능력은 매분 20병. 가격은 단체 베이스로 1500~1800만엔.

판매에 있어서는 로봇에 의한 상자들이나 상자제작, 봉합 등 라인대응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ON 되었다고 한다.

이 성형검사기는 유수 성형메이커에 납품되고 있으며, 이 시리즈의 '핫스탬프 검사기' (MP-320)도 가전메이커 등에서 채용하고 있다.

이외 동사에서는 '라벨인쇄문자 검사기' '병인쇄문자 검사시스템' '수기전표코드 인식사역기' 등의 시판율을 앞두고, 광범위한 전개를 도모할 계획이다.

일, 신메이

라벨링시스템 신주책 참가, 포장물에 자동으로 라벨 첨부

신메이 마쓰모토영업소는 우편요금계기, 인지세납부계

기 등 메이링기기, 라벨프린트, 라벨첨부기 등 프린팅기 기사업을 오랫동안 장야현내에서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의 '신주책'에도 참가해 현내의 소비자에게 많은 홍보를 할 예정이다.

출품물은 포장라인용 오토라벨링 시스템인 'ALS-100', 범용자동날인, 계산기 '체크스탬버', 포장라인대용 라벨슈터이다.

그 중에서도 ALS-100은 콘베이어상을 반송해온 포장물(과자상자, 트레파크, 그외 상자류)에 자동적으로 라벨을 첨부한다. 소형 오토라벨링시스템이고 라벨교환이 간단하고 다품종생산에 적합해 쉽게 라인에 조합할 수 있으며, 저렴하면서도 고성능을 발휘하는 라벨링시스템으로 옵션으로 콘베이어, 설비가대도 준비되어 있다.

중, 포장기술협회

포장기업 경영상황 조사, 768개사 포장업체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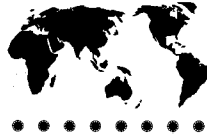
중국 포장기술협회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해 9월 포장기업의 경영상황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포장기업의 대부분이 중소형기업으로 수량상으로는 집단소유제 형식의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산액, 이익구성비율에서는 국유기업이 각각 53%, 56%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금부족이 최대의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 조사는 앙케이트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기업은 티벳, 대만 이외 전국의 29개시에 있는 768사의 포장기업. 그 중 240개사가 국유기업으로 그 외 기업은 모두 40만명에 가까운 사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총생산액은 200억원 이상, 순이익은 25억원 가까이 이르고 있다.

조사에 참가한 기업은 주로 포장산업계내의 기간기업으로 그 수는 전체의 3%이지만, 생산액은 약 1/4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우선 밝혀진 것은 포장기업은 수량면에서 '집단소유제 기업이 주체'이며, 그 수는 기업총수의 절반이상을 점하고 있어, 종이포장, 플라스틱포장, 금속포장분야에서는 절대적인 우위성을 보이고 있다.

국유기업은 포장기계, 유리포장, 포장인쇄 등 분야에 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특히 유리포장에서는 동류기업



총수의 79.5%를 점하고 있다. 확실히 투자가 큰 기술밀 집형 포장기업은 정부가 투자해 설립한 기업이 주체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집단소유제 기업은 투자액이 적고 이익이 급방 높아지며, 기술수준이 비교적 낮은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중외합자기업은 주로 포장기계, 플라스틱포장, 금속포장, 종이제품포장 분야에 진출해 있으며 포장인쇄나 유리포장분야에는 적다. 주식제 기업은 최근 2년간 발전해 온 기업이며, 포장기계·유리포장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중국의 포장기업은 중·소기업이 주체이고 초대형 기업이나 대형기업은 거의가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에 드러나고 있다. 또한 유리제품메이커는 포장산업계에서도 가장 적어, 전체의 5.1%에 불과하지만 평균적 기업의 규모는 업계 최대이며, 1개사당 종업원수는 평균 1088명이다.

포장기계 메이커가 이에 연이어 기업수 전체합계의 10.3%를 점하고 있으며, 평균 종업원수는 1017명. 이어 금속포장메이커 13.4%, 516명, 플라스틱포장메이커 15.7%, 414명, 포장인쇄기업은 15.6%, 391명, 그 외의 포장기업은 7.3%, 400명에 이르고 있다.

일, PP공업연합회
PP필름 4월 출하실적, 일반 CPP 5.3% 늘어

폴리프로필렌(PP)필름의 출하실적은 4월에 OPP가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와 최초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르렀다. 일반 CPP는 5.3% 늘어나 변함없는 신장호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 폴리프로필렌필름공업연합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4월분 PP필름 출하실적은 OPP가 전년 대비 0.6% 감소한 1만8천1백21톤, CPP가 동 5.3% 증가한 7천3백51톤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용도별로 OPP는 식품을 대상으로 한 것이 1만1천4백63톤(전년동월 대비 0.7% 증가), 섬유대상이 간신히 전년 대비 시세하락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수출대상이 1천51톤(동 11.3% 감소)으로 변동없이 OPP전체의 전년 대비에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되었다.

용도별로 본 CPP는 '식품대상'이 호조를 보여 6천97

톤으로(전년동월 대비 7.3% 증가)

'섬유대상'은 마이너스 추이로 2백50톤(동 0.8% 감소), '그외 대상'은 7천2백48톤(동 6.7% 증가).

그 결과 CPP의 내수계는 7천2백48톤(동 6.7% 증가)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대상'은 1백3톤으로 전년 대비 44.9% 감소했다.

일, 쇼어스티를
EPS를 우레탄코팅에 콘테이너로 리턴어블에 사용

발포스티로폴(EPS) 소재 생선상자, 트럭상자에 미발포 우레탄을 코팅해 배달상자 등의 콘테이너로 '변신' 시킨 상품이 최근 등장해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생선배달 상자로 변신 시킨 것은 EPS성형 메이커인 쇼어스티를이다.

보냉·보온효과와 완충성이 뛰어난 EPS용기는 선도유지 유통에는 불가결한 제품으로 이를 대체할 방안이 없는 것도 유통을 넓히는 요인이다.

발포폼이기 때문에 경량·저렴하며 용도가 다양하다. EPS소재의 특성을 살려 리턴어블에 사용하는 것이 동사의 이번 상품화의 목적이다.

여기서 주목한 것으로 일본합성화학의 '에후레탄'이다. '에후레탄'은 인시아네트 프레폴리마와 폴리올 2가지 액으로 만든 속경화의 무용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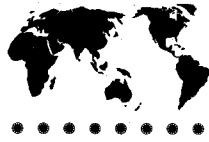
저점도액상 우레탄수지로,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솔리드 100%이기 때문에 도포시 용제가 회석되는 일이 없어 방폭설비나 가열설비가 필요없어 안전할 뿐 아니라, 위생적이며 식품안전기준에도 적합하다고.

이 에후레탄을 EPS소재인 생선상자에 도포함으로써 EPS(발포배울에 의해 달라진다) 그 자체보다 수배의 강도를 얻을 수 있다.

강도가 높아짐으로써 왕복사용이나 배달상자라는 리턴어블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량이며 위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공업부품 배달상자로서의 사용도 가능하다.

가격은 EPS소재의 생선상자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종래의 플라스틱 콘테이너에 비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일, 시정상사

자동결속라인 본격화, 분당 최고 20개 처리가능

시정상사는 최근 용기뚜껑에 포장지를 탑재하고 십자로 묶는 '급지장치부 자동결속라인'을 개발했으며, 1호기 납품선인 유수 메이커에서의 가동이 순조로와 본격전개에 나섰다.

오사카팩에 카탈로그를 출품했을 때 매간시업계 이의 선물이나 과자류, 도시락, 우편물 등에서 '다수의 관심'을 얻어,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이 장치는 콘베이어에 상품을 충전한 용기를 반송하는 한편 자동급지장치로 포장지를 1장씩 흡착하면서 용기 윗부분에 탑재한 후, 소형결속기에 장착한 접는 기계로 상자면을 따라가면서 면을 접어 넣는다. 돌아가면서 접은 후, 1대씩의 결속기에서 한번씩의 결속을 행한다.

계속해서 용기를 90도 반전유니트로 방향전환하고, 용기는 2대째의 결속기의 센터에서 정지한다. 여기서 다시 남은 부분을 접은 후, 2번째 결속을 행해 콘베이어로 반출하는 구조로, 분당 최고 20개를 처리할 수 있다.

일, 송전플라스틱

분해성 수지를 투명병화, 화장품·의약품 등 적용범위 다양

송전플라스틱은 다이렉트 프로성형에 의한 생분해성 수지의 완전투명병화를 세계최초로 성공했다. 이 수지의 제품화는 필름분야가 선행되어 있지만, 고도기술을 요하는 프로성형으로 투명성있는 제품을 성형하는 것은 어렵다고 여겨졌다. 포장재 재활용법이 성립됨으로써 생분해성 수지에 대한 관심이 전에 없이 높아지고 있어, 이 병이 일거에 상품화될 공산도 크다.

동사가 성형에 성공한 것은 80ml용량의 병으로 PET와 같은 수준의 고투명성, 고풍택성을 실현했다. 이는 인젝션성형도 가능하며, 겹에 동수지를 사용하면 투명하고 완전한 생분해성 용기제품을 만들 수 있다. 용량도 현재의 80ml에서 300ml까지 늘일 수 있다.

동사가 사용한 생분해성 수지는 도진제작소가 개발한 '락티', 유산발효 프로세스로 물을 제거해 폴리머화한

것으로 이미 필름화되어 있다. 이것은 무취이며 베리어성도 높아 식품위생법상 적합하며, 바렌타인 초코렛용 종이포장 구조로 채용된 실적도 있다. 생분해성 투명병의 용도에 대해서는 식품에서 화장품, 의약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 문제는 가격인데, 동사에서는 '양산화가 진행된다면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는 생산을 좀더 효율적으로 해 코스트다운을 도모할 계획이다.

일, 청북고연구소

사출연장블로우 성형기 개발, 가격·재활용면에서 큰 이점

청북고연구소는 최근 개발한 폴리에틸렌(PE) 대응 사출연장 블로우성형기를 '오사카 팩'에서 최초로 공개했다. 이는 '사출연장블로우성형기로 PE병 성형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종래의 상식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으로, 균등한 두께의 고품질 병성형이 가능하다. 재료손실도 없고, 첫동작이 신속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점도 얻을 수 있다.

PE는 국내 연간 소비량이 57만톤에 이르는 범용수지이고 포장이나 잡화, 건재 등 각 분야에서 폭넓게 이용되지만, 사출연장블로우 분야에서는 고온·고열량의 프리폼을 사출코아로부터 이형시켜, 블로우시키는 것이 곤란해 '성형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었다. 때문에 화장품이나 약품등에서 요구되는 PE병의 성형은 주로 다이렉트 블로우성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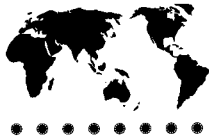
동사에서는 '사출연장블로우의 리더로써 수지의 대표적인 PE를 성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사출금형의 특수한 연구에 몰두하면서 동사의 특허구인 '직접온조기구'를 최대한 활용해 세계최초로 PE의 사출연장블로우 성형을 실현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출성형금형이 닫힌 상태에 있는 동안, 사출코아와 프리폼의 사이에 공기 혹은 기체상 질소를 흘러 냉각, 프리폼을 형에서 떨어뜨린 후, 형을 열어 빼어낸다.

역제는 사출금형이 닫혀 수지가 사출된 후, 냉각시간을 두고 형을 열 때까지의 시간내에 냉각시간과 공기를 제어하기 위한 회로를 설치해간다.

또한 기체가 부드럽게 흐르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금

해외정보



형·사출코아를 2피스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코아선단부, 네크하부, 리프로 유지되고 있는 네크원부의 3점이, 프리폼의 직경, 길이, 두께에 대응해 기체의 흐름에 최적위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제품은 'SB3-150P-20'과 'SB3-250P-50' 2종류. 가격은 각각 3,000만엔, 4,050만엔으로 설정.

동사에서는 '종래 기종에 비해 가격, 성형 재활용면에서 큰 이점이 있고, 사출연장블로우에 의한 PE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부 소비자를 위해 개발했다. 10년 후 이 기계에서 생산하는 용기가 10만톤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PE를 원료로 사출연장블로우성형을 실현한 이번의 세계적인 개발은 화장품이나 약품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PE성형분야에 있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함으로써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일, 종이성형 가공조합

발포스티롤이 종이용기보다 환경에 적합

'발포스티롤제 식품용기가 종이용기에 비교해 환경에의 영향이 적다'는 시험결과를, 폴리스틸렌 종이성형 가공업조합이 정리했다. 소각시간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의 양이 종이용기에 비해 2분의 1에서 3분의 1이하로 대폭 적다고 한다.

시험은 재단법인 고분자소재센터에 위탁, 내용량 300~400ml의 발포스티롤과 종이제의 국그릇으로 연소시간에 발생하는 가스나 발열량 등을 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종이용기의 일산화탄소발생량은 발포스티롤의 2.5배, 이산화탄소는 3.1배, 유황산화물이 3배, 재가 6.4배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발열량은 1.5배였다.

미, 듀폰사

1억5천만 달러의 벌금형에 항소 계획

미 듀폰사는 동사가 개발한 살충제의 유해성과 관련 1억1천5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한 연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듀폰사의 변호사는 피해농가측의 변호사가 요구한 모든 자료를 제공했으며, 요청

할 경우 추구자료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연방법원은 동사가 개발한 살충제가 식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1억1천5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담당판사는 듀폰사가 신문에 사과광고를 게재할 경우 벌금을 1천4백만 달러로 줄여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일, 화학업계

HDPE 필름제품 수입증

일본의 고밀도폴리에틸렌(HDPE)필름제품 수입이 엔고를 배경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월평균 1만톤대를 지속함에 따라 지난 1월~6월중 실적은 6만톤대를 돌파했으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연간실적은 13만~14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수입증가세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을 중심으로 현저해지고 있으며 외국산 필름제품은 일본시장에서 정착되는 단계를 보이고 있다.

중, 상해시

요구조건 충족 못한 1백58개 업체사 특혜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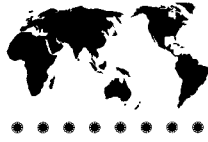
중국 상해시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1백50개 합작 투자사의 세금감면 등 특혜조치를 철회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와 함께 '고도 기술기업' 혹은 '수출품 기업'과 같은 기업에 부여된 토지이용 우선권같은 '혜택 조치'도 철회됐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현재 활동중인 8천여 합작투자사가 그간 상해경제발전엔 기여해왔지만 일부 기업은 이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검사를 받은 36개 고기술 기업중 3개사만 혜택조치 수혜 자격이 있는 반면 2천1백92개 수출품 회사중 1천53개사는 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많은 투자사들이 단순히 특혜만을 노리고 "고기술" 회사이름을 달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중, 화학플랜트건설

구미 화학기업 중국진출에 제2라운드

구미 화학기업의 중국진출이 잇따라 구체화 되면서 진출기업도 스페셜티 케미컬전업 중견기업을 포함해 층이 두터워지는 등 진출러시가 제2라운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일경산업신문이 보도했다. 이같은 양상은 중국이 90년대 들어 2자리수의 경제성장이 정착되면서 90년대 후반의 제9차 5개년 계획에서는 수요확대로 양과 질 양면에서 화학공업의 충실·확대를 강요받게 됨에 따라 외자유치가 불가결한 중국측 사정과 아시아에 대한 포석을 서두르는 구미 기업의 계획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화학품 및 플라스틱 수요는 최근 몇년간 급증하고 있으며 플랜트 신증설이 수요증가에 따르지 못해 자급률은 플라스틱의 경우 48%, 합성섬유는 72%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인구 12억의 식품 확보를 위한 비료·농약·농업용필름 등의 막대한 수요 외에 면화 작황부진에 의한 합성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시가지 재개발 러시에 의한 염화비닐 및 고밀도 폴리에틸렌제 파이프, 가전제품·사무기기·자동차 부품·완구 등에 사용되는 폴리스티렌 및 ABS수지, 포장 및 식품트레이용 발포 폴리스티렌 등의 수요가 신장했다. 이들이 수입급증을 초래, 작년이래 세계적인 유화제품의 수요압박을 가져왔다.

한편 중국정부의 최근 부패추방 캠페인이 이 경제특구에 대한 수지수입 허가를 중단시켜 구미의 경기확대 둔화와 함께 유화제품 공급이 세계적으로 남다를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인플레이제, 국유기업의 체질강화 등 등소평 이후 체제를 앞둔 긴축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실하다. 최근 발표된 외자 가이드라인에선 에너지·하이테크·농업분야, 지역에선 내륙지역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일시적인 담보상태로 보이고 있다. 화학공업의 2천년 목표는 품질면에서 90년대초의 국제수준 도달, 화학생산에 접하는 파인케미컬 비율의 50%로의 향상등 근대화에 두고있다. 100억달러의 수출, 100억달러의 외국투자잔고, 수출지향 100사 창설 등이 계획돼 있다. 구미 기업측에선 92~93년경 포괄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사업화 조사에 들어간 투자안건

이 잇따라 실시단계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몇년 사이 본격투자 시대에 돌입할 기세이다.

몇개 구미기업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듀폰은 최근 생산능력 4만5천톤의 폴리아세탈수지 설비를 건설키로 중국기업과 기본합의했다. 투자액은 1억달러이상으로 99년 완성 예정이다. 또 스파텍스섬유 설비에 착공했다. 이밖에 20건 가까이를 협의중인데 연내 1억달러의 아지포니트를 계획 등 몇개 합작사업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프랑스의 론 프랑은 최근의 사장 중국방문시 앞으로 5년동안 5억달러의 대중국 투자를 표명했다. 계면활성제 등 7건은 이미 조업 내지 건설중인데 이밖에 5건이 합의됐으며 의약 및 농약사업 등 10건이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ASF는 최근 심양에 70%를 출자하는 가축사료용 비타민 합작기업을 설립했다. 97년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이미 상해에서 유기안료와 SB라텍스, 남경에서 폴리에스터수지와 스티렌, 올레핀 계획을 관여하고 있다.

엑슨은 상해 포동지구에서 1억8천만달러를 투자하는 노르말파라핀과 직쇄알킬벤젠(LAB) 합작사업 외에 윤활유첨가제, 석유수지등 1억달러의 투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LAB엔 대만기업의 참가 움직임도 있다.

중, 폴리에스터 생산업체

경기위축으로 PE생산중단

최근들어 중국내 폴리에스터 경기 위축으로 생산활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 중반이래 중국내 폴리에스터 생산업체중 50%가 생산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폴리에스터 생산라인의 80%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상해시의 경우 전체 80%에 해당하는 20여 폴리에스터 메이커들이 생산활동을 중단했으며 절강성의 경우에도 폴리에스터 메이커의 50~80% 정도가 휴업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 광동성의 경우에도 폴리에스터 생산라인의 50% 정도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북경시내 폴리에스터 생산업체들은 모두 공장문을 닫았다. [K]